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지정테마9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1주차	일시	3월 25일 22:00 디스코드(온라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나현	O
		김윤성	O
		전서연	O
임다빈	O		
진도	도서명: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진도페이지: p.1 ~ p.77	
			
	토론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위쪽부터 좌측 임다빈, 우측 김윤성, 아래쪽 좌측 김나현, 우측 전서연]</p> <p>임다빈 작가의 경우, 달리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각자 지속적으로 해온일이 있으신가요?</p> <p>김윤성 저는 시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시를 쓰는 걸 중학교 2학년때부터 시작 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러닝처럼 잡생각도 없어지고 또 제가 살아가는 동기 중 하나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시를 쓰는 걸 오래 했던 것 같아요.</p> <p>임다빈 저는 노래 듣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왔던 것 같고 필사하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시를 쓸 만한 능력은 안돼서 그냥 글씨를 베껴 쓰는 행위를 하면 또 잡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필사를 즐겨하고 있습니다.</p>	

김나현

저는 다이어리 쓰기랑 일기 쓰기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약간 고민했던 잡생각들이 많이 없어지게 돼서 계속 해왔던 것 같아요.

전서연

저는 요즘은 잘 안 하는데 고등학생 때부터 21살 정도까지 산책을 좀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핸드폰도 안 하고 산책만 하는 그 시간이 잡생각도 없어지고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어서 산책을 했어요.

임다빈

다들 이 부분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 있으신가요?

김윤성

저는 침묵에 있어서 완전한 침묵은 없다고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임다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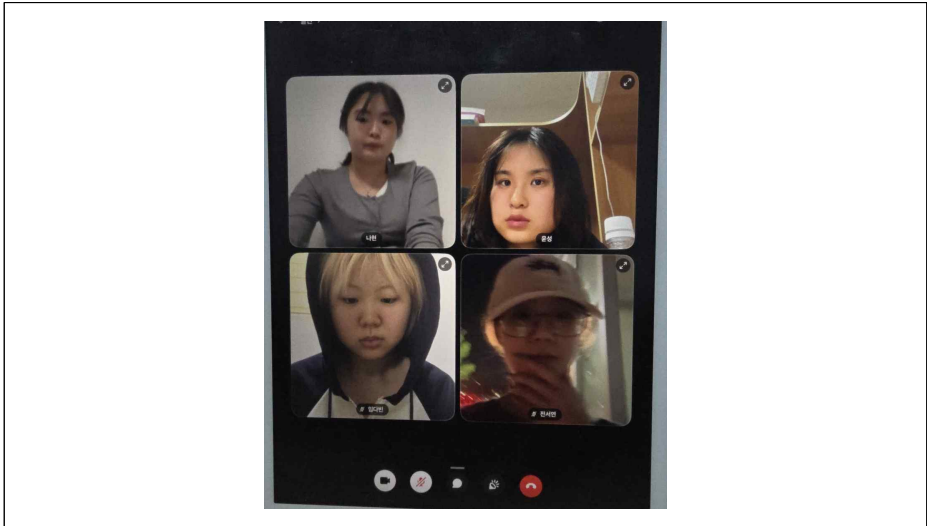
저는 37페이지에 ‘하늘이란 존재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실체인 동시에 실체가 아닌 것이다.’ 라는 구절이 인상 깊었어요. 소설이랑 러닝을 떠나서 그냥 인생에서 한번 생각해 볼만한 문장인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김나현

저는 작가님이 야구를 보면서 갑자기 소설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부분이 인상이 깊었는데, 야구랑 소설은 되게 다른 분야잖아요. 근데 야구를 보면서 소설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전서연

저는 중요한 건 계속한다는 하루키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제일 잘 맞는 문장이라 와닿았습니다.

	일시	4월 9일 22:00 디스코드(온라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나현	O
		김윤성	O
		전서연	O
임다빈	O		
진도	도서명: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진도페이지:	p.81 ~ p.133
2주차	토론 내용	 <p>[위쪽부터 좌측 김나현, 우측 김윤성, 아래쪽 좌측 임다빈, 우측 전서연]</p> <p>임다빈 이 책에서 정신과 육체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다들 정신이 힘들 때 해결하기 위해 하는 활동이 있나요?</p> <p>임다빈 저는 기분이 안 좋거나 힘들 때 디저트를 먹거나 헬스를 해서 기분을 좀 환기시키는 것 같아요.</p> <p>전서연 저는 일본드라마를 보면서 힘든 걸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p> <p>김나현 저는 네일샵에 가서 네일을 받으며 기분을 환기하는 것 같아요.</p> <p>김윤성 저는 좋아하는 노래를 들어요. 한 노래를 반복해서 듣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많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p> <p>임다빈 이 책을 읽고 내 삶이난 일에 적용할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p> <p>임다빈 저는 이 책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는 러닝을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러닝을 시작했는데 잡생각도 사라지고 좋았습니다.</p> <p>전서연 저는 꾸준히 해봐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인상 깊어서 인생에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p>	


2주차
토론내
용

김윤성

저는 우울한 감정이 들면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으로 그 감정을 이겨내는 것이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나현

저는 사소한 루틴을 꾸준히 실천해서 루틴이 있는 삶을 만들어 내는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상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일시	4월 30일 22:00 디스코드(온라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나현	○
		김윤성	○
		전서연	○
진도	도서명: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진도페이지: p.137 ~ p.185	
3주차	토론 내용	 <p>[위쪽부터 좌측 김나현, 우측 김윤성, 아래쪽 좌측 임다빈, 우측 전서연]</p> <p>임다빈 이번에 읽었던 파트 중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작가가 엄청 긴 울트라 마라톤에 나간 내용이었어요. 이부분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마라톤을 같이 하진 않았지만 뭔가 옆에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좋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합니다.</p> <p>전서연 저는 글을 보면서 달리기에 대한 권태기라던가 노화에 대해 무던히 받아들이는 것이 인상이 깊었는데, 저도 언젠가 노화가 되고 원래 하던 일을 나중에 노화가 되면서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p> <p>김나현 작가가 다른 사람들이 달리기 하는 걸 보면 각자에게 어울리는 페이스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공감이 가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자신과 맞지 않은 페이스로 가면 빨리 지치기 마련이잖아요. 주변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건강한 마인드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p> <p>김윤성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해본 적은 없지만 달리기를 할 때,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서 작가가 자기가 계속 기계라고 암시하는 게 인상 깊었어요.</p>	

3주차
토론내
용

임다빈

140 페이지에 ‘얼마 동안 물을 보지 않고 있으면 내가 무언가를 조금씩 잃어 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했는데 다들 이런 게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일정 기간 어떤 걸 하지 않거나 보지 않으면 나를 잃어가는 것 같은, 존재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있을 것 같아서 세분은 다 그런 존재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저는 혼자서 YouTube를 보던지 책을 읽든지 하는 그런 혼자만의 시간이 저를 존재하게 해주는, 저를 잃지 않게 해 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김윤성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혼자 뭔가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게 제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들게 해 주는 것 같아요.

전서연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데 하루 일과가 다 끝나고 나서 강아지랑 둘이 있을 때 그때가 제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같아요.

김나현

저는 사람을 만나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일상 얘기를 나누는 것들요.

임다빈

저는 171페이지에 ‘장기적인 일이지만 눈앞에 있는 한 가지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그 장기적인 일들도 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읽으면서 달리기뿐만 아니라 저희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만 앞에 있는 거를 하나한 하다 보면 어느새 다 해 나갈 때가 있어서 이런 생각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분들은 혹시 또 공감이 가거나 감상 한 문장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김윤성

달리다가 잠깐 화장실 못 가서 10분 앉으면 다시 뛰기 어렵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달리는 일뿐만 아니라 어떤일을 열심히 하다가 잠깐 쉬면 그 일을 다시 재개하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전서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육체의 노화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때의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김나현

161쪽에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 그것은 내일이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다’라는 구절이 되게 좋았는데요. 내일을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 날을 기대한다는 게 인상 깊은 거 같아요.

4주차	일시	5월 21일 22:00 디스코드(온라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김나현	○
		김윤성	○
		전서연	○
진도	도서명: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진도페이지: p. 185 ~ p. 279	
토론 내용	 <p>[위쪽부터 좌측 김나현, 우측 김윤성, 아래쪽 좌측 임다빈, 우측 전서연]</p> <p>임다빈 이번주에 읽은 부분 중에 각자 인상 깊은 한 구절을 얘기해주세요.</p> <p>김윤성 저는 229페이지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거기에는 친절한 마음의 편린 같은 것이 보일까? 아니다, 보이지 않는다.’ 라는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 저도 알바를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가끔 하늘을 뚫어져라 쳐다볼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저도 이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p> <p>김나현 저는 224쪽에 ‘모든 노력은 정당하게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라는 것을 새삼 강조할 마음은 물론 아니지만, 만약 하늘에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징표를 조금이라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이 부분이 좋았어요. 작가가 마라톤을 위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부분이 공감이 많이 되었어요. 잘해왔던 것이 어느 날에 갑자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날들이 떠오르면서 이 문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p>		

4주차
토론내
용

전서연

저는 마지막 장에 ‘만약 내 묘비명 같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 문구를 내가 선택하는 게 가능하다면, 이렇게 써놓고 싶다.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이것이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이 인상 깊었습니다. 달리기를 할 때 걷고 싶은 욕구가 크지만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고 하는 게 저도 나중에 어떤 프로젝트나 일을 할 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인상 깊었어요.

임다빈

저는 마지막 장에, ‘개개의 기록도 순위도 걸모습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가도 모두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좋았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지이고, 다른 사람이 보는 모습은 부차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 자신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장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임다빈 2491036	<p>이 책을 처음 접했을 때는 그저 달리기에 관한 책인줄 알았는데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경험담을 담은 책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 점차 이 책에 빠져들게 되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소설 쓰기과 러닝을 루틴화하여 두 분야에서 모두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고난의 상황이 와도 꾸준히 루틴을 지켜나가며 곳곳이 버터내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특히 러너스 하이가 온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 활동을 통해 하루키의 인생관을 팀원들과 탐구해보고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 의미 있었다. 또한 러닝이라는 새로운 취미를 얻은 좋은 시간이었다.</p>
	2	전서연 2351093	<p>무라카미 하루키가 매일 쉬지 않고 달리는 모습을 보며, 꾸준히 노력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었다. 나이가 들고 힘든 순간이 와도 핑계를 대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p> <p>책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이 사람처럼 내 삶을 진지하고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나' 하고 내 모습을 깊이 되돌아보게 되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었던 하루키처럼, 나도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 끝까지 버티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p> <p>또한 독서 토론을 하면서 이 책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다양하게 나누는 시간이 정말 좋았다. 같은 내용을 보고도 저마다 느끼는 점이 다른 것을 보며 내 생각을 한층 더 넓힐 수 있었다.</p> <p>앞으로 공부를 하거나 미래를 준비할 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하며 하루를 채워나갈 것이다.</p>
	3	김윤성 2611117	<p>무라카미 하루키의 이야기가 단순히 달리기라기보다도 인생과도 느껴졌다. 끝없이 달리는 마라톤, 그 마라톤도 처음부터 장거리 마라톤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단거리부터 시작해서 완주하는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도 이 책을 읽으며 내 인생을 달리고 싶어졌다. 걷는 것도 좋지만 무언가 한번 열심히 달려보고 싶어졌다. 앞으로 나도 그와같이 내 인생이라는 장거리 마라톤을 진심으로 달려서 기쁨으로 완주하고 싶다.</p>
	4	김나현 2411203	<p>무라카미 하루키를 그저 소설 작가로만 알고 이 책을 읽게 되었다. 하지만 이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끊임없이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소설 작가 임에도 불구하고 무라카미 하루키는 여러 마라톤을 도전하고 좌절하더라도 툭툭 먼지털듯 털어내고 다시 달린다. 그런 모습들이 존경스러웠다.</p> <p>나도 삶을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일이 닥쳐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때가 되면 무라카미 하루키가 절망을 떨쳐냈던 것처럼 절망적인 일을 떨쳐내고 싶다.</p> <p>또한 자신이 설정한 목표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 무라카미 하루키처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운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p>